

# 조응천 “보수야당도 참패 후 ‘친박’이 당장악해 죽었다”

친박에 친문 빚대 맹폭 “기득권·무오류 태도 여전”  
“언론타, 靑 책임 얘기말라” 野 강성충도 한 얘기  
“대선 승패 갈림길... ‘사는 길, 죽는 길’ 뻔히 보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문을 과거 보수야당을 장악했던 친박계에 빚대며 거듭 이선후보를 주장했다.

이선후보가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검찰개혁, 탈원전, 부동산 정책과 이른바 ‘조국 수호’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당의 핵심세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떠한지 180석을 주신 민의를 받들어 돌파해야 하고, 인물에 대한 시종의 평가가 어떠한지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하였던 것이 아

니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친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책임을 지기커녕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을 내세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선 참패를 열거한 뒤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며 “혁신하고 변화하면 살았다.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면 앉아서 죽었다”고 단언했다.

다른 길은 죽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정현복 광양시장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 송구합니다”

서동용 의원 광양시민과 국민께 드리는 입장 밝혀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과 각종 논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국민과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엄중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당 지역위원회로부터 쇄신하고 바꾸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듬고 챙기며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로 입장을 마무리 하였다.

다. 앞으로 공직자 비위 관련하여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께서 납득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백범 김구 묘역 참배하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앞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롯한 유족 등이 김구선생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김회재,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히 상황이다.

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與 비대위 “최고위원, 중앙위 아닌 전당대회서 뽑기로”

비공개 비대위서 만장일치 수정 의결...다음달 2일 전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1일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내달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수정의결했다”며 “기존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것을 5월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의결했다”고 전했다.

정의를 결했다”고 전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